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교육과정 이해와 경험*

홍 은 숙**(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교육과정 이해도 변화와 경험을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한 학기 동안 예비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41명, 포커스그룹면담에는 12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룹면담에 대한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 분석결과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자료 분석을 통해 3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론:**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현장중심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 차원에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2019 개정 누리과정, 예비유아특수교사, 현장중심 프로그램

* 본 연구는 2023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eshong@kor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2013년에 3~5세 유아 모두에게 확대시행된 이후(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시기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유아에게서 발현되는 놀이가 교육의 시작점으로 인식되는 데에 있다. 즉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에 의해 계획된 교육과정의 재현이 아닌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임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그 성격에서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유아, 놀이, 자율성’은 이전 누리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 누리과정은 이해와 실천적 측면에서 이전 누리과정과의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는 미리 정해진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현되는 놀이를 지원하는 자로서의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에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 실행은 개발된 교육 과정을 단순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염지숙, 2011)으로 볼 때,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에 있어 교사는 텍스트 차원의 이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놀이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20년 3월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었고 벌써 4년이 되어 가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경험이나 인식이 양분되는 경향(김지은 외, 2021)이 나타났다. 즉 장애유아에게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미 있는 교육과정으로 경험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또한 처음 2년 동안은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현장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개념 이해와 교사역할의 실제에 혼란을 겪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이성희, 이미영, 2021; 이소현 외, 2022; 황인영, 이병인, 2023). 최근 연구(유현주, 김자경, 2023)에 의하면 장애유아에게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교사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국가차원,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교사연구회를 통해 교사들이 유아 중심,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놀이가 중요해지면서 놀이신념, 놀이효능감에 대한 연구(박계신,

홍은숙, 김현숙, 2021; 박하림, 부성숙, 2022)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누리과정이 강조하는 놀이에 대한 해석이 교육과정 운영 주체들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면 연구결과는 물론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의 신념에 존재하는 놀이에 대한 다양한 의미해석은 놀이를 개념화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Altun, 2018; Sherwood & Riefel, 2010)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교사들 안에서 놀이의 의미와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에 대한 의미규정은 결국 개정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현장에서 교사역할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역할은 이론적 지식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사 스스로 알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채득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의 실제적 의미와 교사의 역할을 알고 실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직전 교사교육에서 예비교사가 습득하는 지식과 경험, 가치관은 향후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가 되는 교육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교육신념은 향후 다양한 놀이상황에서 교사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송이, 2015; 문미숙, 박종우, 2020).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된 이후 유아특수교육 분야에서 현장교사의 누리과정 경험과 실행역량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윤전, 이병인, 배성현, 2023; 문세희, 노진아, 2022; 이미리, 이병인, 강성리, 2022; 이소현 외, 2022).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교육현장에 나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할 예비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비유아특수교사의 실행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인식에 관한 연구(홍은숙, 2022)에 의하면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미래의 교사로서 실행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중심의 경험을 충분히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는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양성과정에서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양성과정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현장중심 프로그

램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면담을 모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예비유아특수교사들로서 전공에서 5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와 관련된 이론 과목을 최소 2개 이상 이수하였다.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51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41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2) 포커스그룹면담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에게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후 편의표집을 통해 현장방문을 했던 조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12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2. 현장중심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구성

이 현장중심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대학에서 담당하는 전공과목인 ‘유아특수교육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의 틀 안에서 2023년 2학기에 이루어졌다. 이 과목은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전공과목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전에는 주로 유치원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월간계획서, 주간계획서, 활동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따라 교재교구를 만들고 수업실연을 한 후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취지에 맞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도모해 왔다.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매주 강의실에서 3시간의 수업에 참여하였고, 강의 후에는 매주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LMS에 업로드했으며, 강의 외 시간에 소그룹활동(예: 놀이실연)과 유치원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유아특수교사가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사의 자율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역량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계획되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현장중심 프로그램 구성

구성	주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탐구															
2	현장지원자료 활용 유아놀이 연구															
3	개정 누리과정 기반의 놀이사례(동영상)															
4	유아 입장에서 놀이 흐름 만들기															
5	현장교사초빙 누리과정 운영사례 특강															
6	현장연계 자문지도(조별 1회 방문)															
7	12개 기관의 현장자문내용 공유															
8	놀이지원계획 및 놀이실연, 피드백															
9	매주 반성적 저널 작성															

위의 구성에 따라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주차 별 활동 내용은 해당 주차의 대표적인 것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매주 강의마다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 자료집, 지역교육청 자료집, 현장교사가 직접 실행한 놀이 동영상 등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실천 능력향상을 도모하였다.

1~5주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중심으로 개별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개정 누리과정 내용과 연관된 짧은 동영상(EBS 관련자료, 시도교육청 시범유치원 사례, 개별교사의 영상 등)과 현장지원자료를 함께 참고하면서 해설서의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업에서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해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교육부, 2020) 등 누리포털에 있는 자료집의 내용을 다루면서 유아중심·놀이중심 누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놀이와 교사의 역할을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주로 다룬 핵심어는 ‘놀이의 의미, 의미 읽기, 혼자 놀이, 놀이자료, 교사의 유아놀이 이해, 교사의 지원, 바깥놀이’ 등이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지원자료를 통해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유아의 놀이’

〈표 2〉 강의 주차별 목표와 활동 내용

주차	내용	강의 목표	활동 내용
1	강의 소개	15주 강의 내용과 목표 알기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놀이' 이해	■ 개정 누리과정 관련 질문: 소그룹 토론 → 발표 -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과교재'란 무엇인가? - 내가 알고 있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 동영상 시청: 놀이가 유아에게 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예: 놀이는 밥이다) → 생각 나누기
2-3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탐구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	■ 누리과정 제정과 개정의 역사와 변화의 주요 내용 파악 ■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누리과정의 성격, 구성방향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 ■ 동영상 시청: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유치원 수업과 개정 후의 수업(놀이활동)을 차례로 시청한 후 차이점 비교 → 생각 나누기 ■ 강의 후 활동: 〈휴먼카인드〉(브레흐만) 14장 '놀이하는 인간: 우리 안의 무한한 회복탄력성' 읽고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관성 생각하기
4-6	개정 누리과정 사례 탐구	개정 누리과정의 실제 운영 사례 탐구 및 적용	■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현장지원 자료에서 찾아 탐구: 계획안, 놀이평가, 실내외 놀이공간, 놀이자료, 바깥놀이 등 ■ 유아의 입장에서 놀이 흐름과 교사의 지원 역할 생각해 보기 : 소그룹 활동 → 발표 〈놀이흐름 예〉 - '사슴벌레가 우리 교실에?': 유치원교실에 사슴벌레 성충과 알이 나타나면 유아들의 관심과 놀이는 어떻게 이어질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할 수 있을까? ■ 동영상 시청: 바깥놀이 관련 영상 → 토론
7-9	함께 만들어 가는 누리과정	유아의 주도성과 교사의 지원 역할 이해	■ 동일한 소재(예: 그림책)를 가지고 유치원활동에서 누리과정 개정 전과 후의 교사역할 비교하며 놀이흐름예상 〈놀이의 예〉 - 〈무지개물고기〉(마르쿠스 피스터)를 유아들이 경험한 후 예상되는 놀이와 교사의 지원 ■ 동영상 시청: 유아의 주도성과 교사의 지원이 잘 나타난 유치원 활동(예: 물의 길 만들기) ■ 소그룹 활동: 동영상 시청 후 그룹별로 유아주도와 교사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놀이흐름 만들어 보기 → 발표 ※ 8주: 중간고사

〈표 2〉 강의 주차별 목표와 활동 내용

(계속)

주차	내용	강의 목표	활동 내용
10	현장교사 초빙 특강	개정 누리과정의 실제 운영 사례 이해	- 다양한 통합상황에서 장애유아들의 놀이시작, 놀이참여, 놀이확장 사례 - 교사의 놀이확장지원 사례 - 개별 장애유아를 위한 교수적 지원 사례 - 놀이상황에서 개별화교육 사례 - 놀이지원계획서 작성과 활용의 예, 놀이평가 방법 - 가정연계 사례 및 동료들과의 협력 사례 - 유치원 실내외 환경구성 및 활용 사례 - 유아특수교사의 역할
11 -13	현장연계 교사 자문	개별 유아특수 교육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이해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를 주제로 유아의 놀이흐름 예상하고 지원방법 탐구하기,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하기 <놀이시작의 예> - 캠코더와 빔프로젝트에 의해 교실 앞 화면에 만들어진 자신의 그림자 발견 - 놀이지원 계획서 작성(그룹) - 현장방문: 개별 자문교사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조별로 1개 기관 총 12개 기관) - 자문내용 발표 및 공유 → 질의응답 및 토론
14	놀이실연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놀이예상	- 놀이지원계획서에 따른 놀이실연(동영상 촬영 및 편집) - 사후놀이평가
15	놀이실연 피드백	놀이평가	놀이예상계획안과 놀이실연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피드백 제공
1- 15	반성적 저널 작성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실행역량 제고	- 학생들은 매주 반성적 저널 작성하여 LMS에 탑재 - 교수자는 LMS에 탑재된 반성적 저널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제기한 질문이나 의견 및 생각에 대해 다음 강의 시간에 피드백 제공 → 시사점 논의

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 6주차 부터는 4~5명이 한 조가 되어 특정 상황에서 유아의 입장에서 놀이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였다. 주차가 높아지면서 교사의 놀이지원, 장애유아의 도전행동을 놀이로 연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10주 차에는 완전통합교육을 시행하는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23년 교육경력인 유아특수교사를 초청하여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실제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현장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에는 6개의 특수학급이 있어서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특강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의 놀이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강에서 놀이사례와 계획서 등은

특수교육논총

사진자료와 함께 제시되었기에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현장감 있는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을 경험할 수 있었다.

11주~13주에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실제 적용되는지, 교사는 장애유아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을 현장교사에게 자문받기 위해 조별로 협의한 일정에 맞춰 직접 기관을 방문하였다.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바로 현장에서 자문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방문 후 1주일 이내에 강의실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다양한 기관의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현장교사의 교육적 신념 및 가치관, 놀이지원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14주 차에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를 종합하여 조별로 통합환경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놀이실연을 준비하였다. 우선 유아에게서 발현된 놀이를 대략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여 교사가 확장지원하는 놀이(예상)지원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현장(유치원 환경의 실습실, 복도, 운동장, 놀이터, 산책로 등)에서 실연하였으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놀이실연을 할 때 유아(예비유아특수교사)가 계획안과 다르게 놀이를 이어 나간 경우도 있었다. 이때 교사는 융통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은 10분 이내로 편집하여 계획안 설명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유하였으며 연구자와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함께 피드백을 제공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매주 강의나 활동, 특강, 현장방문이 끝난 후 자신이 경험한 유아중심의 놀이와 유아특수교사로서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 성찰한 것을 반성적 저널로 작성하여 LMS에 업로드하였다. 연구자는 이것을 토대로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갖는 생각과 의문점 등을 다음 강의 시간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반성적 저널에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1주 차부터 자신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읽으면서 변화된 가치관이나 사고 등을 정리하였다.

2) 현장연계 자문

현장연계 자문을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오후 일정으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서울, 경기, 세종, 충남)을 선정하였고, 전국유아특수교사협의회 교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현장자문 교사를 추천받았다.

현장자문에서 멘토로 최종 선정된 교사는 총 12명으로 그 중 10명은 5년~21년의 유아특수교육 현장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하며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과정을 경험한 교사들이다. 1명은 현장경력 2년 차이이며, 다른 1명은 현장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재 기관에 1년 차 근무 중인 교사이다. 현장자문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는 총 51명으로 3~5명이 조를 이루어 12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문하였다. 자문교사가 근무하는 지역과 기관 유형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현장연계 자문기관

ID	지역	기관 유형	ID	지역	기관 유형
특수	서울	특수학교	단설4	세종	단설숲유치원
단설1	서울	단설유치원	병설3	충남	병설유치원
병설1	서울	병설유치원	병설4	충남	병설유치원
단설2	경기	단설유치원	병설5	충남	병설유치원
병설2	경기	병설유치원	병설6	충남	병설유치원
단설3	세종	단설유치원	병설7	충남	병설유치원

현장교사에게 자문받을 내용은 주로 개정 누리과정 운영 및 장애유아의 놀이, 교사의 놀이지원에 관한 것으로 자문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및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기본적인 자문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내용은 현장자문에 참여할 교사 2인에게 타당도를 확인받았다.

〈표 4〉 자문 내용

-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의 놀이
- 장애유아의 놀이와 혼자 놀이
-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를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장애 유아에게 주는 의미
- 유아가 필요로 하는 놀이자료, 놀이 공간, 놀이 기회 등 놀이지원
- 개정 누리과정에서 사용하는 계획안 유형
- 실내외 환경구성과 관련하여 개정 누리과정 전과 달라진 점
- 융통성 있는 하루일과 운영
- 유아특수교사로서 경험하는 개정 누리과정의 강점과 어려움
- 중증의 장애를 가진 유아에게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
- 유아관찰 및 평가 방법
- 대집단 활동 시 장애유아 참여를 위한 놀이지원 및 놀이확장 사례
- 유아특수교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

각 조는 해당 기관별로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위의 자문내용과 함께 방문할 기관의 특징과 관심에 따른 추가 내용을 첨부하여 최종 자문내용을 완성하고, 그것을 방문 1주일 전에 해당 자문교사에게 문서로 보냈다. 현장자문은 협의한 일정에 따라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자문은 주로 유치원 정규 일정이 끝나는 오후 1시~4시 사이에 시작되었으며, 자문은 1시간 30분~3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

1) 설문조사

(1) 도구개발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도가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와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홍은숙(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현장

〈표 5〉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문항	내용
1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개정 전 누리과정의 차이에 대한 이해
2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의미하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
3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와 무의미해 보이는 놀이에 대한 이해
4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의미하는 놀이를 통한 배움에 대한 이해
5	유아의 관심에 따른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
6	유아의 놀이 관심에 따른 교사의 지원 방법에 대한 이해
7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8	공동놀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9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놀이자료에 대한 이해
10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놀이공간에 대한 이해
11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나 제한된 관심을 놀이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12	각종 계획안 사용에 대한 2019 누리과정 개정 전·후의 차이 이해
13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내·외 환경구성에 대한 이해
14	유아의 놀이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
15	교사로서 유아의 놀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해
16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아특수교사의 역량에 대한 이해
17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 방법에 대한 이해
18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가정연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
19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에서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20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 준비해야 할 역량에 대한 이해
21	(서술형)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경험 및 프로그램의 의의

경력 5년 이상의 유아특수교사 2명에게 문항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초안의 문항 중 1개 문항을 2개의 문항(놀이지원자로서 교사의 역할, 공동놀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으로 각각 만들었으며, 다른 1개의 문항(‘놀이 상황에서 장애유아의 도전행동에 대한 대처’)은 개별적인 지원방법으로 인식되어 삭제하였다. 수정을 통해 <표 5>와 같이 최종 20문항이 확정되었다. 각 문항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1=전혀 없다, 5점=매우 있다)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설문지의 1번~20번 문항은 참여자가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를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각각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 21번 문항은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 이해도 응답을 기준으로 2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914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2) 자료수집 절차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1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파일로 보낸 후 희망자에 한 해 1주일 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익명으로 응답지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회수된 설문응답지는 총 41개이다. 회수된 41개 응답지는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 포커스그룹면담

(1) 도구개발

포커스그룹면담을 위한 면담내용은 설문조사 문항과 그 외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장자문 교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아 다음의 <표 6>과 같이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포커스그룹면담은 2023년 12월 6일~12월 18일에 이루어졌다. 우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에게 면담의 목적과 면담절차를 설명하였다. 이후 편의표집을 통해 현장방문을 했던 조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았고, 총 12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한 그룹에 4명씩 3개 그룹을 만들었으며 면담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면담일자와 면담시간을 그룹별로 조율하도록 하였다. 면담 일정과 그룹 구성원이 결정된 후 연구자는 면담 3일 전에 질문지를 문서파일로 보냈으며 반구조화된 면담 진행 방식을 설명하였다. 포커스그룹면담은 그룹별로 1회씩 협의한 시간에 지정 강의실에서 각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 전에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노트북 녹음 프로그램과 핸드폰에 각각 녹음되었다.

〈표 6〉 면담 내용

주제	질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 놀이중심 ·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생각 - 장애유아의 놀이(혼자 놀이 포함), 도전행동에 대한 생각 - 기존의 누리과정과 개정 누리과정 차이 이해 - 장애유아를 위한 놀이지원 - 유아관찰 및 평가 - 실내 · 외 환경구성 -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서 계획안 활용 - 통합교육(통합교사와의 협력, 특수교사의 역할) - 장애유아에게 개정 누리과정 적용의 의미 - 유아특수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 경험	- 다양한 유아특수교육현장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경험한 것 - 현장중심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의의

4. 자료분석

1) 설문조사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응답지 총 41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1번 서술형 문항에는 총 32명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의 A4용지를 사용하여 글자 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0으로 9쪽 분량이었다. 연구자가 반복하여 읽으면서 21번 문항에 맞는 ‘현장중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하위 범주로 묶었다.

2) 포커스 그룹면담

우선 녹음된 내용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플랫폼에서 면담 당일 모두 전사되었다. 이후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사본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하였으며, 연구보조원 1인이 녹음자료와 전사본 초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전사본을 면담 참여자 3인과 함께 검토하며 재확인하였다. 최종 전사본은 한글 프로그램의 A4용지를 사용하여 글자 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0으로 그룹별로 각각 15쪽, 17쪽, 17쪽으로 총 49쪽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 자료 분석방법 중 하나인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반복적 비교분석 과정의 ‘개방 코딩-범주화-범주 확인’의 3단계(유기웅 외, 2018)에 따라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최종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이름을 붙여 주제별로 분류하

는 개방 코딩 작업을 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코딩 자료를 계속 비교하면서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이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범주가 수집된 자료를 대표하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범주는 질적 분석 경험이 있고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 1인과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다.

5.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질적분석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전사본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상호 검토함으로써 전사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재 유치원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면담내용과 분석결과를 함께 검토해 주었다. 셋째 분석결과와 내용이 참여자의 의도에 맞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 면담그룹 별로 1명씩 총 3명의 참여자에게 분석결과와 인용문을 SNS로 보내 확인받았다.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지 배포 및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지 회수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할 것을 안내하였다. 둘째, 포커스면담 참여자 선정 시 연구 목적과 면담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았다. 면담 전에 참여자 전원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다. 셋째,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 연구 참여자가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에만 답하고 원하지 않는 내용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면담 중 질문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넷째, 면담의 모든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

1) 양적자료 분석 결과

현장연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N=41)

문항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차이		<i>t-value</i>
	M	SD	M	SD	M	SD	
1	3.29	.559	4.90	.300	1.61	.628	16.423***
2	3.24	.799	4.85	.358	1.61	.862	11.951***
3	2.73	.923	4.83	.381	2.10	.917	14.652***
4	3.29	.559	4.83	.442	1.54	.552	17.819***
5	3.51	.711	4.85	.358	1.34	.693	12.392***
6	3.10	.664	4.83	.381	1.73	.708	15.662***
7	3.39	.586	4.93	.264	1.54	.596	16.516***
8	3.22	.652	4.78	.475	1.56	.673	14.860***
9	3.07	.877	4.90	.300	1.83	.892	13.136***
10	3.34	.794	4.88	.331	1.54	.778	12.651***
11	2.56	.838	4.78	.475	2.22	.909	15.641***
12	3.15	.792	4.85	.573	1.71	.782	13.972***
13	3.10	.700	4.90	.300	1.80	.679	17.022***
14	2.95	.921	4.63	.581	1.68	.934	11.540***
15	2.90	.735	4.80	.401	1.90	.768	15.856***
16	3.29	.844	4.98	.156	1.68	.850	12.682***
17	3.05	.773	4.68	.567	1.63	.888	11.789***
18	3.24	.830	4.63	.581	1.39	.919	9.690***
19	3.02	.935	4.68	.471	1.66	1.063	9.988***
20	3.10	.735	4.98	.156	1.88	.781	15.400***

*** $p < .001$

20개 문항 모두에서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 이해도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11번(장애우아의 혼자 놀이나 제한된 관심을 놀이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으로 값은 2.56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후의 평균은 4.78로 나타났고, 평균 차이는 2.22로 20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차이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평균에서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3번(장애우아의 혼자 놀이와 무의미해 보이는 놀이에 대한 이해)으로 차이값은 2.10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참여 전에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5번(우아의 관심에 따른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 운영에 대한 이해)으로 참여 전과 후 평균값은 각각

3.51, 4.85로 평균 차이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의 평균만 살펴보면 20개 문항의 평균값은 4.63~4.98 범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중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16번(2019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아특수교사의 역량에 대한 이해)과 20번(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특수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으로 나타났다.

2) 서술형 문항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21번 문항(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경험 및 프로그램의 의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적용 가능성 확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현장중심 프로그램이 교원양성과정 중에 있는 예비유아특수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역량 강화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실제로 잘 운영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질 못했는데, 최근에 현장도 방문하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도 들어보니 참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이번 현장자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놀이를 어떻게 확장시켜야 하는지 열추 틀을 잡을 수 있던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응답자 A)

전에는 누리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 실제 유치원도 방문해서 현장에서 자문을 받으니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제로 유치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응답자 B)

실제 유치원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의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깨달아 가기 위해서 또는 유아특수교사로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C)

현장연계 자문지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론상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리과정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평소 궁

특수교육논총

금한 점들을 현직 교사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응답자 D)

방문을 통해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 준비하고 싶은 것은, 유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중략) 현장연계 자문지도는 유아특수교사의 양성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현장연계 자문지도를 통해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응답자 E)

2. 포커스그룹면담 분석 결과

포커스그룹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8>과 같이 3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포커스그룹면담 인용문의 출처는 참여자가 방문했던 <표 3>의 기관 ID를 사용하였다.

<표 8> 대주제와 하위 주제

대주제	하위 주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 놀이를 통한 배움 -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에 대한 관점의 확장 - 놀이를 위한 확장된 공간 활용 - 교재교구와 놀이자료의 의미 확장 - 재현적 성격의 계획서가 아닌 발현된 놀이를 기록하는 사후평가서 - 장애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유아특수교사의 역량	- 유아관찰능력 - 자율성과 융통성 - 놀이지원 및 놀이확장능력 - 교사와의 협력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의 역할 정립	- 놀이중심의 의미와 현장적용 가능성 확인 -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 역량 제고 노력

1)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놀이를 통한 배움’과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에서 자신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유아에게 누리과정 적용하는 것과 유아특수교사로서의 역할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 놀이를 통한 배움

참여자들은 ‘배움’을 인지적 학습에만 치중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놀이는 배움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의 듣기 전에 놀이중심 이름만 들었을 때 놀이를 한다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놀이를 진행하는지 그걸로 어떻게 유아들이 배울 수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현장 방문하고 또 수업 듣다 보니 그 속에서도 충분히 배움이 일어나고 놀이를 통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유아들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병설2)

저는 이번에 현장을 갔다 오면서 배움이라는 게 지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나 신체적인 발달까지도 배움에 속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경험을 다른 놀이에 적용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움이 일어나는구나 단순한 어떤 놀이를 해도 그 안에서는 무조건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에 확신이 생겼어요. (단설2)

(2)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에 대한 관점의 확장

참여자들은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에 대한 의견을 가장 강하게 제시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이 부분에서 사고의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참여 전에는 ‘혼자 놀이’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는 장애유아가 혼자 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를 개별 유아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우선 통합을 생각한다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자문을 통해서 모든 놀이에는 이유가 있고 유아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방해해선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놀이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단설2)

저도 혼자 놀이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대그룹 놀이를 할 때 아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그 놀이에 흥미가 없더라도 억지로 끌고 와서 참여시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혼자 놀이하면서 흥미 있는 것을 할 텐데 왜 그걸로 놀이로 발전시켜줄 생각을 못하고 아이를 무작정 끌고 오게 했는지 이번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흥미 있어 하는지 혼자 놀이를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병설5)

특수교육논총

(3) 놀이를 위한 확장된 공간 활용

참여자들은 현장교사의 특강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열린 시각을 보았고, 그 후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특강에서 생각했던 유사한 실내·외 환경구성과 확장된 공간 활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저희 이 유치원 같은 경우 거의 완전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놀이를 최대한 확장하고 공간도 복도로 확장할 수도 있지만 특수학급도 활용을 한다고 해요. (단설1)

여기 유치원도 복도에 그냥 아이들이 블록을 갖다 놓고 놀이하도록 하고 텐트 같은 것도 쳐놓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단설3)

(4) 교재교구와 놀이자료의 의미 확장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교재교구’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유아들의 활동을 위해 교사가 자신의 손재주를 활용하여 멋지게 만든 것이 훌륭한 교재교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교재교구란 유아의 놀이에 쓰이는 가시적, 비가시적, 유·무형의 자료, 놀이 공간, 비구조화된 자료 등 유아가 놀이에 활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이 확장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에 나가보면 선생님들이 병뚜껑 같은 정말 비구조화된 거 그리고 구입하더라도 스티로폼 공이나 바구니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변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설5)

이번에 간 유치원에서 바깥 놀이도 구경하고 교실에서 어떻게 놀이가 진행되는지 보고 나서 이제 교재교구가 굳이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유아들이 그냥 관심 가지고 흥미를 느낀다고 하면 그게 그냥 교재교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유아 중심의 놀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설4)

(5) 재현적 성격의 계획서가 아닌 발현된 놀이를 기록하는 사후평가서

참여자들은 이전의 누리과정에서 사용했던 계획안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적 성격의 계획서가 아닌 발현된 놀이를 기록하는 사후평가서를 직접 경험한 후, 유아주도로 이루어지는 놀이와 유아와 함께 만들어 가는 누리과정에 대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전에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까지 다 작성했는데 이제는 월간만 작성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월간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고, 계획안이라기 보다는 놀이를 하고 난 후에 사후 평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자세하게 월간 작성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어떤 놀이를 할지 대략 예상하는 놀이를 작성해서 가정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병설3)

저희 선생님께서도 개정 전·후의 계획안 둘 다 보여주셨어요. 개정 후 자료를 보니까 시각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놀이 전 계획안이라기보다는 놀이 후에 어떻게 놀이가 흘러갔는지를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알던 계획안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설1)

선생님께서 개정 전·후의 계획안 자료도 직접 보여주셨었는데 정말 한눈에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정 전은 뭔가 칸도 많고 글도 엄청 많고 교사의 발문 유아의 예상 발문까지 정말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개정 후는 그냥 좀 많이 비어 보이고 되게 자유로운 형식이었고 또 계획 중심보다는 좀 결과 중심으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게 한 눈에 딱 보였어요.

(단설2)

(6) 장애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반에 개정 누리과정이 도전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장애유아에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남아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현장사례를 경험한 후 개정 누리과정이 장애유아에게 더 의미 있는 교육과정임을 알게 되었고 도전적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통합환경에서 도전적인 행동은 방해가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반에 김치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노래를 공개 수업 시간 학부모님들 초청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 노래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그 유아가 제일 잘 참여하는 아이가 되게끔 했다는데, 관점을 바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병설6)

저희 선생님은 개정 후가 확실히 더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유아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옛날에는 유아의 흥미보단 배워야 하는 내용, 누리과정에 나온 그 거를 집어넣기 바빴다면 이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를 놀이로 연결해서 놀이에 참여하

는 것에 좀 더 의의를 두게 된 게 장애 유아한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설5)

개정 전에는 교사가 다 계획해서 정해진 방법을 유아들에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장애 유아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잘 참여하지 못했는데 개정 후에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하게 되면서 유아들이 직접 게임 방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서 장애 유아들도 조금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장애가 두드러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설4)

2)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유아특수교사의 역량

참여자들은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 교사관이나 교육신념이 굳건해졌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어는 관찰능력, 놀이지원, 자율성, 융통성, 순발력, 협력 등이었다.

(1) 유아관찰능력

유아에게 어떤 것을 지원하고 유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 작은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도 관찰을 잘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라고 생각해요.

(단설2)

이번 선생님께서 관찰이 방임이 아니고 유아의 선호도나 문제 행동 양상이나 발달 양상을 알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유아의 니즈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병설6)

(2) 자율성과 융통성

제가 방문한 유치원은 자율성이 엄청 커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다가 커피 놀이를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주변 카페에 전화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가루를 얻어오고 이런 놀이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정해진 날에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셨어요.

(단설3)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유아들과 아침부터 무엇을 놀이하면 좋을지 상의해서 시작을 하고 교구 같은 것들도 융통성 있게 유아에게 너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 제공을 한다 하셨습니다. 숲 속에서도 놀이를 하는데 숲속에는 재료들이 다양하잖아요. 또

홍은숙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교육과정 이해와 경험

장애유아랑 일반 유아를 구분짓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설4)

(3) 놀이지원 및 놀이확장 능력

저희 선생님은 유아의 흥미를 놀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순발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역량인데 유아들을 관찰하고 유아들의 말을 듣고 놀이를 확장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병설5)

교사로서 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유아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고 유아들이 어떤 놀이를 할지 그리고 그 놀이를 어떻게 확장시킬지 콘텐츠나 아이 디어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설6)

(4) 교사와의 협력

제가 갔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사후 놀이기록을 교실 앞에 붙여서 서로 어떤 놀이를 했고 그 놀이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도 하면서 협력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설4)

저희 선생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는 배려랑 협력이라 하세요. 관리자랑 일반 교사랑 특수교사랑 이렇게 3명이서 같이 협력을 해야 통합 학급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장에 가기 전에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단설3)

3)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의 역할 정립

참여자들은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중심’의 실제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으로써 유아특수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 자신에게 부족한 실행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1) 놀이중심의 의미와 현장적용 가능성 확인

저는 처음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정말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놀이중심에서 생각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특수교육논총

수업이 됐던 것 같아요. 특강도 들어보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실 교사가 제일 바쁘다는 거를 정말 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수)

저는 놀이중심과 유아중심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었는데 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누리과정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병설1)

(2) 예비유아특수교사로서 역량 제고 노력

저는 요즘 장애 유아로부터 발현된 놀이나 아니면 이미 놀이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놀이 흐름을 장애유아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게 할까, 이 놀이 흐름을 조금 더 장애유아에게 맞게 어떻게 할까, 놀이에 대한 흥미를 갖게 어떻게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한 역량을 조금 키워나가고 싶어요. (병설4)

저는 우선 순발력과 놀이 상상력을 키우고 싶어요. 현장관찰실습 나가면서 저는 유아 같은 뇌는 가지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유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유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동화책도 좀 많이 읽고 있고 좋아요. (병설5)

제가 너무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라든지 그런 놀이가 나오면 반응을 잘 해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동안 현장관찰실습 갔던 일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단설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중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적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놀이’와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에서 참여

자들에게 가장 큰 인식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20개 문항 중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나 제한된 관심을 놀이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11번 문항)와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와 무의미해 보이는 놀이에 대한 이해’(3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와 함께 가장 큰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포커스그룹면담에서도 참여자들은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놀이와 혼자 놀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신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그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의 개정 누리과정 인식에 관한 홍은숙(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초반에 놀이에 대한 파편적인 개념과 의미 불일치로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놀이를 유아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이로써 장애유아의 혼자 놀이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놀이에 대한 의미 차이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고(오채선, 2019), 예비교사의 신념에 존재하는 놀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해석과 모순은 놀이를 개념화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Altun, 2018; Sherwood & Riefel, 2010),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예비교사들에게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둘째,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유아로부터 나오는 발현적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유형의 놀이라도 장애유아에게서 나온 놀이에는 반드시 배움이 함께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는 배움을 구성해 나가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이고, 그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이자 방법으로 작용한다는(이연선, 연희정, 2021) 인식이 장애유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놀이는 다차원적이어서 장애유아들은 또래와 다르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장된 사고(Graham et al., 2018)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장애유아 놀이의 개별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놀이 인식을 바탕으로 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의미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유아의 발현적 놀이 안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실천적 노력, 즉 체계적인 놀이지원 계획과 놀이 맥락에 따른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다(이소현 외, 2022; 진다정, 2020).

셋째,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의 누리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계획안, 교재교구,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방법들을 경험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실천능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방문한 12개 기관과 특강에서 소개된 기관에서는 이전 누리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세부적인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 및 활동계획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는 놀이지원 (예상)계획안과 놀이사후평가서였는데, 이 자체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주도하지 않고 유아의 놀이 흐름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사가 미리 계획하고 조직한 교수내용, 교수방법, 교수자료, 교육목표에 맞는 평가를 모범으로 여겨졌던 이전 누리과정의 교사주도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정 누리

특수교육논총

과정의 취지에 맞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연구(정영아, 이병인, 2021)에 의하면 유아특수교사들은 현장에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며 대학에서 실제적 경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실제와 차이가 없는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실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원양성대학은 현장과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도모해야 하겠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현장교사의 자문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유아특수교사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자문 교사의 근무 지역, 근무기관 유형, 교육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자신에게 개별적 의미로 다가온 핵심역량은 거의 비슷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유아특수교사의 주요 핵심역량으로 유아관찰능력,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 놀이지원 능력, 놀이확장 능력,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의 협력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유아특수교사의 놀이지원 실행역량 연구(백종남, 박소영, 2021)에서 나타난 핵심역량의 요소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인식에 대한 연구(홍은숙, 2022)에서 도출된 핵심역량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 프로그램은 향후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할 예비유아특수교사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그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설문 조사의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현장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이 다양한 유아특수교육현장의 실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현장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능력이 자신의 것으로 체득되고 내재화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현장과 밀착된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 실행에 관여하는 요인 및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교사들의 생각을 접하고, 의미 있는 실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이연선, 연희정, 2021) 점에서 현장중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예비유아특수교사에게 현장중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원양성과정에서는 관찰실습이나 교육봉사 그리고 학교현장실습 기간에만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서도 예비유아특수교사들은 특정 역할과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누리과정의 실재를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실천적 역량을 성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비교사의 실천적 사고의 밀도는 단지 현장경험 시간의 양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현장중심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진 밀착형 현장연계 자문처럼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김송이 (2015). 보육교사의 경력 및 소진과 놀이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481-499.
- 김운전, 이병인, 배성현 (2023). 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3(1), 193-221.
- 김지은, 박혜준, 노진아, 박찬우, 박현옥, 최현정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특수교사의 경험과 기대: 초점집단면담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21(2), 57-87.
- 문미숙, 박종우 (2020).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놀이교수효능감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3), 151-182.
- 문세희, 노진아 (2022). 중도중복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22(2), 23-49.
- 박계신, 홍은숙, 김현숙 (2021). 유아특수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력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놀이교수효능감 및 놀이신념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21(1), 89-114.
- 박하림, 부성숙 (2022). 유아교사의 놀이신념과 놀이교수효능감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코칭연구, 15(2), 131-154.
- 백종남, 박소영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기반 유아특수교사 놀이지원 실행역량 모형의 구성 타당성 검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1), 21-39.
- 염지숙 (2011).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학논집, 15(6), 295-310.
- 오채선 (2019). 누리과정, 놀이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39(2), 279-305.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현주, 김자경 (2023). 발달지체유아 통합학급에서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립유치원 통합학급 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논총, 39(2), 157-182.
- 이미리, 이병인, 강성리 (2022).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한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경험 분석: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29(1), 67-100.
- 이성희, 이미영 (2021). 2019개정 누리과정 현장 적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467-496.
- 이소현, 윤선아, 안의정, 허수연, 나지희 (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통합유치원 유아특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경험과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22(1), 31-62.
- 이연선, 연희정 (2021). ‘놀이 중심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예비유아교사교육에서의 세 가지 쟁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481-1507.
- 정영아, 이병인 (2021). 유아특수교사와 일반유아교사의공립유치원 완전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협력 경험과 지원요구. 특수교육논총, 37(1), 145-183.

- 진다정 (2020). 원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놀이중심 교육의 이해와 실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홍은숙 (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예비유아특수교사의 인식과 실천적 요구. *특수교육*, 21(1), 5-31.
- 황인영, 이병인 (2023).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유아특수교사들의 경험. *특수교육논총*, 39(1), 137-164.
- Altun, Z. D. (2018).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perspectives on play and teachers' role.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11(8), 91-97.
- Graham N, Nye C, Mandy A, Clarke C, & Morriss-Roberts, C. (2018). The meaning of pla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systematic thematic synthesi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4(2), 173-182.
- Sherwood, S. A., & Reifel, S. (2010). The multiple meanings of play: Exploring preservice teachers' beliefs about a central el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31, 322-343.

Abstract

Curriculum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of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Field-centered Program
for the Operation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Hong, Eunsuk** (Korea Nazaren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 and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who participated in a field-centered program for the operation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Method:** After implementing a field-centered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for one semester, a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1 and 12 individuals, respectively. A paired-sample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nge in understanding an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articipants' specific experiences. **Result:** The survey analysi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understanding of the revised Nuri curriculum. Qualitative data analysis revealed 3 main themes and 12 sub-themes. **Conclus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pre-ser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n field-centered programs, implementation strategies at teacher-training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uthority levels are discussed.

Key words :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pre-service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field-centered program

게재 신청일 : 2024. 01. 05

수정 제출일 : 2024. 01. 25

게재 확정일 : 2024. 01. 31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3

** Corresponding author (eshong@kornu.ac.kr)